

이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서울특별시 시장 동정자료



■ 매수 : 4매 ■ 사진 : 일정종료직후 제공 웹하드(press.webhard.co.kr) ID/PW:press1

담당 :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

언론담당관	2133-6205	신문팀장	2133-6207	담당자	2133-6255
이준형		김경진		조항윤	

오세훈 시장, 중(中) 장쑤성 당서기 면담..도시 간 교류 활성화 논의

- 6월 20일(목), 서울시장-중국 장쑤성 당서기 대표단 방문 면담 -

- 오세훈 서울시장은 6월 20일(목) 오후 4시 서울시청 본관 간담회장1에서 신창싱(信長星, Xin Changxing) 중국 장쑤성 당서기를 만나 서울시와 장쑤성 간 친선교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.
- 2023년 1월 장쑤성 당서기로 선출된 신창싱(信長星, Xin Changxing) 중국 장쑤성 당서기는 중국공산당의 최고 지도기관인 ‘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(205명)’에서 의결권을 가진 제20차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장쑤성 내 1인자이다.
- 중국 지자체의 당서기급 인사가 시장을 예방한 것은 지난해 10월 스샤오린(施小琳, Shi Xiaolin) 당서기에 이어 두 번째로, 이날 면담은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줄어든 양 도시 간의 우호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중국 장쑤성은 삼성전자(쑤저우), SK하이닉스(우시), 기아 자동차(옌청), LG 전자(난징) 등 반도체, 자동차, 배터리 등 한국의 주요 제조 기업 다수가 진출한 곳으로, 서울시와는 2008년 7월 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상호 교류를

지속해왔다. 오 시장은 우호도시 협약차 장쑤성에 방문해 난징의 중산릉, 부자묘 등을 시찰한 바 있다.

- 이날 면담에서 오 시장은 지난 2008년 방문 시 느낀 장쑤성에 대한 인상을 전하며, "오늘 방문을 계기로 서울과 장쑤성, 한중간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"고 말했다.
- 지난 한·중 정상회담 시 언급된 '한국은 땀 수 없는 파트너'라는 표현을 빌려 양국 간의 중요성을 밝힌 신 당서기는 서울시와 장쑤성의 더 활발한 교류를 위한 방안으로 ▲양 도시 간의 고위급 인적교류 지속 추진 ▲경제무역 교류 ▲과학기술, 교육문화, 체육 등 다방면으로의 교류 확장 등을 제안했다. 특히, 미래 세대인 청소년층의 교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.
- 이날 서울시청을 처음 찾은 신 당서기는 저탄소, 친환경을 표방하는 서울시 청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전하기도 했다.
- 오 시장은 또, 올해 10월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종합적으로 선보이는 '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'와 하반기 개최 예정인 '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' 등을 소개하며, 장쑤성 대표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고, 향후 양 도시 간의 활발한 교류 협력에 있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협조적인 역할도 기대했다.
- 이에 싱하이밍 대사도 장쑤성과 서울의 우호 교류를 위한 다리 역할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.

- 아울러, 오 시장은 짧은 일정에 방한한 신 당서기 등 장쑤성 대표단에 지난해 서울시민이 꼽은 최고의 정책인 '책 읽는 서울광장'을 언급하며, 이날 저녁에 서울광장에 예정된 행사 현장을 둘러보길 권하고, 최근 참여자 100만에 돌파한 '손목닥터 9988'을 성공적인 건강정책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.

※ 관련 부서 : 경제정책실 아시아태평양팀장 김미선 ☎2133-5277

□ 현장 사진



오세훈 시장이 20일(목) 오후 4시 서울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신창성(信長星, Xin Changxing) 중국 장쑤성 당서기를 만나 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논의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.



오세훈 시장이 20일(목) 오후 4시 서울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신창성(信長星, Xin Changxing) 중국 장쑤성 당서기를 만나 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논의하고 있다.